

## 여수세계박람회 D-2



“104개국 입장ियो” 9일 오전 여수세계박람회 개막식 주무대인 빅오(Big-O)광장에서 104개 참가국과 10개 국제기구 기수단들이 개막식 리허설을 하고 있다. /여수=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모나코·스웨덴 국왕 부부, 덴마크·네덜란드 왕세자 부부

### 전세계 로열패밀리를 여수로

오는 12일 개막하는 여수세계박람회에 ‘절세미녀’ 모나코 왕비 등 각국 로열패밀리가 몰려온다. 9일 조직위에 따르면 모나코의 알베르 2세 국왕과 샤를렌 왕비는 방한 기간 중 나흘을 여수에서 보낼 예정이다. 알베르 2세 내외는 6월 2일 여수로 입국해 3일에 있을 ‘모나코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 또 4일 열리는 모나코 투자 관련 포럼에 참석해 모나코-한국 기업인들을 만날 예정이다. 알베르 2세는 육상의 열렬한 팬으로 알려져 있고, 샤를렌 왕비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의 전 올림픽 국가대표 수영선수로 미모가 빼어나다. 지난해 알베르 2세와 샤를렌 왕비의 결혼식은 모나코 왕실에서 반세기 만에 처음 열리는 결혼식으로 화제가 됐다. 또 덴마크의 프레데릭 크리스티안 왕세자와 메리 도널드슨 왕세자비도 10일 한국을 찾는다. 프레데릭 왕세자 내외는 올레 손 산업부 장관 등 장관 4명과 기업인 76명을 이끌고 방한한다. 프레데릭 왕세자는 박람회 개막식에 참석한 뒤 제2차 글로벌녹색성장포럼과 제2차 한-덴마크 녹색성장동맹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네덜란드 빌럼 알렉산더 왕세자 내외도 오는 6월 18일 ‘네덜란드의 날’을 기념해 박람회를 찾는다. 또 스웨덴의 칼 구스타프 16세 국왕과 실비아 왕비도 이달 29일 국민 방한한다. 구스타프 16세 내외는 여성 장관 2명을 포함해 경제 통상사절단과 함께 한국을 찾는다. 관문점과 비무장지대(DMZ)에 방문해 한국에 주둔하는 스웨덴 군인들을 격려할 계획이다. 실비아 왕비는 이화여자대학교를 방문하고 스웨덴-한국 치매 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다. 오는 6월 6일 ‘스웨덴의 날’이 열릴 때 문에 여수 방문이 유력시되지만 아직 이들의 여수 방문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 밖에 헝가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도 박람회 개최 기간 한국을 찾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개막 코앞인데... 안일한 조직위

### 국가관 절반만 완공·미디어데이 졸속 전시관 예약제 개선 요구도 묵묵부답

여수세계박람회(12일~8월 12일) 개막을 이틀 남겨둔 9일 오전, 박람회장 곳곳에서는 보도블록을 드러내고 전시 관련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등 공사가 한창이었다. 이날 국내외 기자들을 초청해 전시를 소개하는 ‘미디어 데이’가 열렸지만 일부 전시관에서는 공사가 끝나지 않아 박람회장에는 흙먼지가 자욱했다. 공사장에서 나온 돌과 나무 등 건축 폐기물도 치워지지 않고 이곳저곳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또 미디어 데이 행사도 동시통역이 중단되고, 중국어·영어권 통역은 아예 준비하지 않는 등 졸속으로 추진돼 눈치를 받았다. <관련기사 2·3면> <개막 코앞인데 땅 파고, 돌 깨고=전시관 공사가 늦어지면서 개막 후

관 일부 외관도 이날에야 도색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박람회장 주변 도로 공사도 마찬가지로 지체됐다. 외지 관람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국도 17호선 석창교차로 입체화 공사는 여전히 진행중이었다. <첫 공식 홍보 ‘미디어데이’도 엉망=최근 박람회 조직위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죄송합니다’이다. 이날 미디어데이도 ‘죄송합니다’로 시작됐다. 1~3차 여행연습에서 드러난 손발 맞지 않는 조직위의 엉성한 운영은 이날도 계속됐다. <숙박난 덜 크루즈 유치 난항=박람회 기간 호화 크루즈 유치도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11일 전야제, 12일 개장일에 맞춰 해상호텔 부두인 제3부두에 미국 선적 ‘크루즈 디 에메랄드호’(3만급)를 유치할 계획이었으나, 입차 문제 등으로 여수행이 늦춰지고 있다. <조직위와 여수시는 “실무적인 문제로 5월 중순에 입학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지만 여수시가 지난 1일에야 사내 파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으로 미뤄 박람회 기간이 크루즈가 과연 뜰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여수=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光銀 분리 매각... 향토은행 환원돼야”

### 광주전남 국회의원·당선자 20명 일괄 매각 철회 촉구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및 당선자 20명은 9일 “정부는 우리금융지주 일괄 매각 공고를 철회하고 광주은행을 선분리 매각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호남 지역발전 견인차 역할을 해온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우리금융지주 일괄매각은 지역금융과 중앙금융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훼손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금융산업의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광주은행은 반드시 ‘선분리’ 매각을 통해 향토은행으로 부활돼야 하며 2010년 정부의 우리금융민영화 방침 발표 이후 ‘인수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해 지방은행 인수를 위해 노력해 왔던 지역민들에게 반드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난 2001년 경영상 어려움으로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광주은행은 고강도의 자구 노력과 경영혁신을 통해 지난 3년 동안 배당총액이 800억원을 넘을 정도의 우량은행으로 성장했다”며 “이런 시점에서 정부의 광주은행 일괄매각 방침은 향토은행인 광주은행을 인수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려고 질쳐부신하고 있는 지역 경제인과 지역민들의 염원을 좌절시키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강기정·김동철·김성곤·김승남·김영록·김영진·박주선·박지원·박해자·배기운·오병윤·우윤근·이낙연·이윤석·이용섭·임내현·조영택·장병완·주승훈·황주홍 등 광주·전남지역 18대 의원 및 19대 의원 당선자 20명이 참여했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또 이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광주은행이 향토은행으로 부활, 중앙과 지역금융의 동반성장을 통해 지역경제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민주통합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호남 지역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광주은행은 향토은행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에 지역금융이 희생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학교설립 58주년(1954-2012)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ufell 아이유셀 www.gwangju-ufell.co.kr

## 이런 혜택,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역세권 프리미엄에 미래가치는 물론 환경, 생활, 교육 프리미엄까지 우방아이유셀의 남다른 가치를 누리십시오!

남구의 중심, 학군의 중심 **백운·월산 우방아이유셀**

600만원대 착한 분양가!

5월 11일(금) OPEN!

우방아이유셀 전속모델 남진

## 오픈 기념 BIG 이벤트

- 가족사진촬영 (선착순 150분에 한함)
  - 일시: 5월 11일(금)~13일(일) 3일간
- 방문객 사은품 증정 (선착순)
  - 일시: 5월 11일(금)~13일(일) 3일간
  - 대상: 모델하우스 내방객
- 매일 쏟아지는 경품이벤트
  - 기간: 5월 11일(금)~6월 1일(금) 22일간
  - 대상: 모델하우스 내방객 중 응모권을 작성하신 고객에 한함

백운 청약일정

- 1·2순위: 5월 15일(화)
- 3순위: 5월 16일(수)
- 추첨일: 5월 22일(화)

월산 청약일정

- 1·2순위: 5월 17일(목)
- 3순위: 5월 18일(금)
- 추첨일: 5월 24일(목)

84㎡A.B, 117㎡, 125㎡ 총 584세대

분양문의 1577-2771

백운: 시행 SM(주)삼라·리우조양, 시공 SM(주)우방·삼라건설(주)  
월산: 시행 SM(주)삼라, 시공 SM(주)우방·삼라건설(주)